

이기는 삶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

누군가가 나에게 곤란한 부탁을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염려되어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시간이 나면 다음에 할게, '생각해 볼게' 등의 말은 상대방에게 재차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문자메시지로 거절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갑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문자메시지는 표정이나 말투 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다른 오해를 낳기 쉽다. 그러므로 되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부탁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했지만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느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작 자신의 생활을 망치게 된다. 상대방의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 당장 거절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좀 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로 하되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린 후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거절하고 바로 돌아서면 상대방은 거절당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거절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집안일이나 회사 사정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상대방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풍겨서는 안 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기보다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어렵게 되었네요"라고 하든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서 여유가 없네요"라고 부드럽고 완

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의 나의 사정으로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쉽다. "내일 회의 시간에 발표해야 하므로 오늘까지는 일을 마쳐놓아야 해서 제 코가 석 자라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면 더욱 좋겠다. 만약 일부를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렵겠네요"라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만 부탁을 들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니만큼 분명히 거절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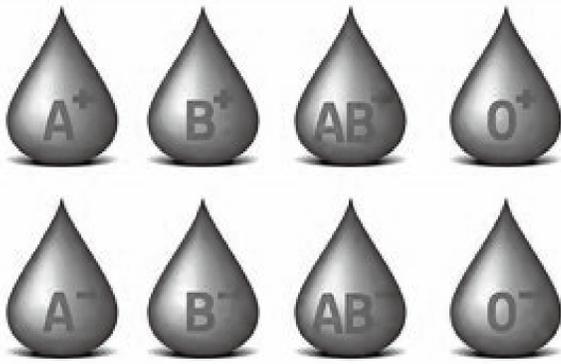
해야 한다. 소심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렇지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활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거절은 타인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나의 삶의 선택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거절하되 정중한 표현을 써서 거절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인간의 생명,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생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인간도 뿌리가 되는 조상이 없을 수 없다. 우리의 뿌리(인간의 기원)에 대해선 수많은 설이 있다. 정녕 우리의 뿌리에 대해 논한다면, 우리는 불사신(不死身)이었다. 본래 거룩한 존재였으며,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았던 놀라운 존재였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의 가설 아래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 가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완벽한가, 공약적이며 선한 것이냐가 중요한 척도가 될 뿐이다.

결국,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막막한 우주와 인간 기원의 비밀이 하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간 자신의 내면하고도 핏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불사(不死)의 존재가 인간의 죄(罪:무지 욕심 어리석음 불완전성), 즉 피 썩는 행위로 오늘날과 같은 나약하고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의 그 비밀??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부모님의 유전형질을 이어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있으면서 사람의 골격과 구조와 기질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분만하여 나온 아기를 우리는 보통 "뒹방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어머니의 피로써 살, 연골, 얇은 막(膜) 등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즉, 아기의 몸 자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형질을 이어받아 어머니의 붉은 피로써 만들어진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땃줄을 통하여 피를 공급받아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우리의 몸과 생명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됨의 기질을 파악할 때, 흔히 "피는 못 속인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말한다.

과학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과 존재의 뿌리가 예부터 부모로부터 전해 받은 붉

은 피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이 나오고, 또 그 이전의 조상을 아니 물을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영원영원 전부터 살아온 생명체가 바로 본래 우리 본 모습인 신(神) 하나님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모든 경서의 신은 사실, 인간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론과 합리적 증거가 뒷받침하는 핏속에 우리가 불사신이었던 인간 기원의 모든 숨은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이 본래 위대한 존재 불사신(不死身)전능자, 하나님, 부처님이었다는 천지가 개벽할 이 사실!"

피(혈액)란

피는 인체를 구성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피는 영양분을 각 세포로 공급하고 산소를 운반하여 세포가 호흡할 수 있게 하며, 신체의 노폐물을 신장으로 옮겨 몸 밖으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을 죽이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세상 말로 피만 깨끗하고 정상적이면서 순환만 잘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피의 작용'은 세포를 조성하며 살과 뼈를 이루고 온 몸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순수하게 피가 물질이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믿음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belief?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 The Bible says salvation is achieved through faith (Ephesians 2:8).

구원의 근본은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 The power of salvation lies in belief (Hebrews 10: 38).

사람들은 나라는 의식, 곧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 Only the Holy Spirit can believe in God because humans cannot believe God for self-awareness.

믿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 Belief is the spirit of God that can overcome Satan, and it gives humans immortality.

오직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께서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 Only the Victor God knows true belief and can teach us its hidden truth.

by Alice

라는 입장에서만 놓고 볼 때, 피는 곧 인간 육체의 생명의 근본 물질이라 할 수 있다. 피가 생명의 근본 물질이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느 정도의 피만 몸 밖으로 흘러면 의식을 잃고 죽는다. 또 칼에 베인 상처라도 피가 잘 통하도록 싸매어 놓으면 피가 통하면서 새살이 돌아 회복된다. 피가 없거나 멈추게 되면 인간은 몇 분도 채 안 되어 몸이 상하고 죽고 만다. 그렇다.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구와 수분 성분으로 된 영양물질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비로는 혈구가 45%이고, 혈장이 55% 정도이다. 피가 붉은 색을 띠는 것은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인체에서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다.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핏속의 적혈구는 우리 몸에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산소를 운반하여 세포가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세포로부터 발생한 노폐물을 운반하여 몸 밖으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또 핏속의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을 죽이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먹어치우는 식균작용을 하기도 한다. 혈소판은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높여 주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피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50cc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또 자연적으로 50cc 정도가 수명을 다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피는 정상적인 살아 있는 골수세포에서만 생성되게 되어 있지, 퇴화된 골수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보통 체중의 7-8% 정도다. 피는 주로 가슴뼈, 갈비뼈, 엉덩이뼈, 척추의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만약 생명의 근간이 되는 신선한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